

‘현대차 킹산직’...10년만의 채용에 서버까지 마비

성별·나이 제한 없고 평균 연봉 ‘9600만원’ “고연봉·정년 보장하는 생산직 지원” 러시 완성차 업계선 10만명 이상 지원 가능성도

“고연봉과 정년이 보장되는 현대차 ‘킹산직’이 났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을 신규 채용한다는 소식이 국내 채용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채용 시장에선 높은 평균 연봉과 안정된 근무 여건이 보장되는 현대차 생산직을 두고 ‘킹산직(생산직을 높여부르는 말)’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경기 침체에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는 기술직(생산직) 채용 공고가 나간 이후 계속해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는 상황이다. 생산직 채용 소식이 지원자가 홈페이지에 급격하게 몰렸기 때문이다.

앞서 2일 현대차는 올 상반기 기술직 신입사원 4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생산직 채용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현대차는 이번 채용을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으로 정하고,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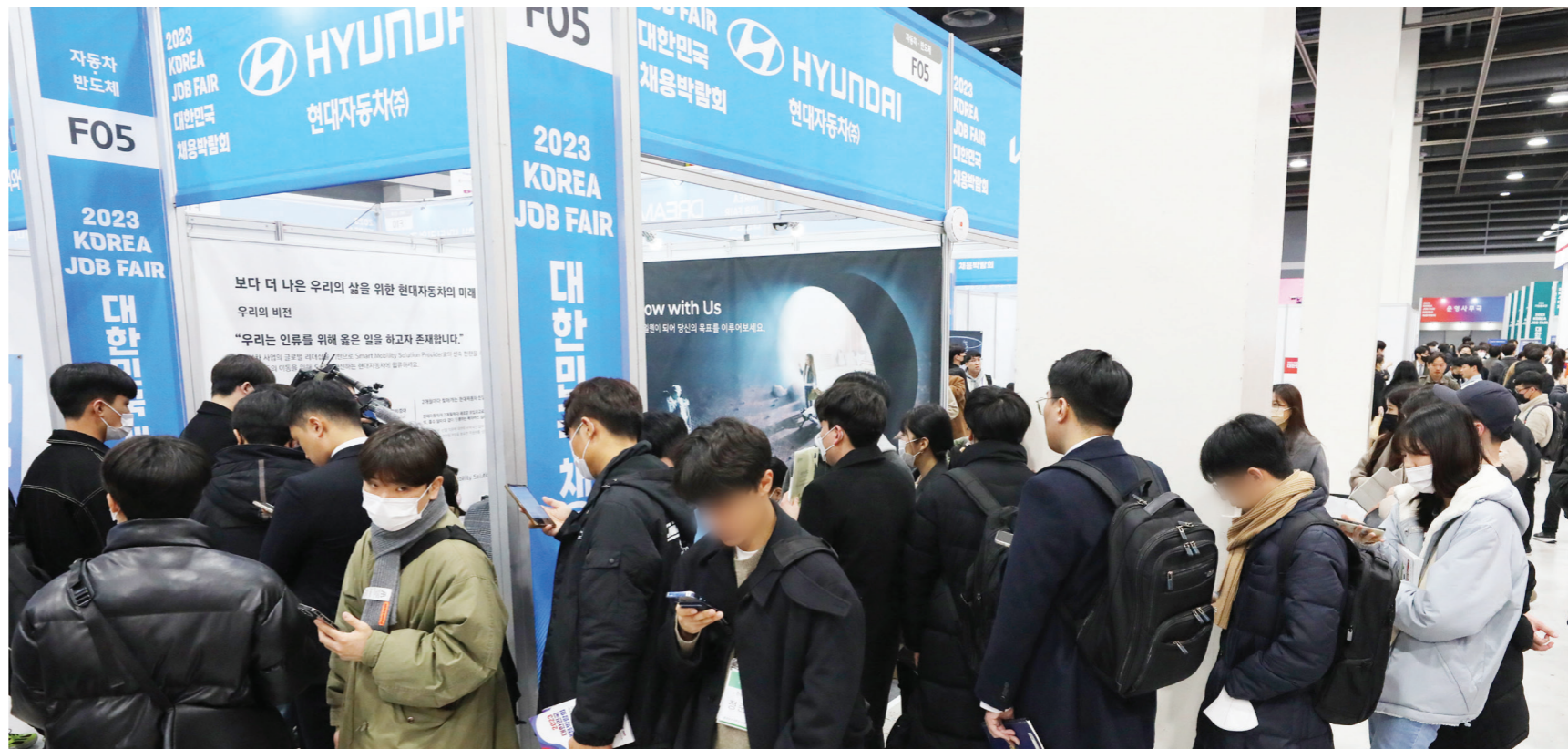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과 성별 제한은 없다. 다만 남자는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서류 접수는 오는 12일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후 면접과 인적성 검사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과 구직 시장의 높은 자연스럽게 이번 생산직으로 풀리고 있다.

현대차 생산직은 고연봉(2021년 기준 평균 9600만원)과 정년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다. 생산직 신입사원 연봉도 대기업 연봉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년간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차 생산직이 ‘신의 직장’이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다.

20대 취업 준비생 A씨는 “일 자리를 구하는 게 바늘 구멍인 시대에 현대차 생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개막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 마련된 현대자동차 부스에 많은 구직자들이 몰려 있다.

직만큼 높은 돈을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블루칼라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말했다.

30대 공무원 B씨는 “현대차 생산직 초봉이 현재 공무원 연봉보다 더 많다”며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공무원과 다를 바 없어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실제 완성차 업계에선 이번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10만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본다.

현대차 생산직 열풍은 서점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파크나 예스24 등에선 현대차 생산직 수험서가 판매 순위 상위에 올랐다. 이같은 생산직 인기에 대해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의 근무여건 개선 때문에 더 인기라는 분석도 들린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생산 라인에 고도화되며 근무 강도가 예전과 비교해 현격히 낮아졌다”며 “직업 위험도가 개선됐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며 기대감이 더 높다”고 말했다.

연봉 1억 입사 위해 ‘면접 족보’까지 뜬다

채용 공고 발표되자 서점에 수험서 속속 등장 취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합격 족보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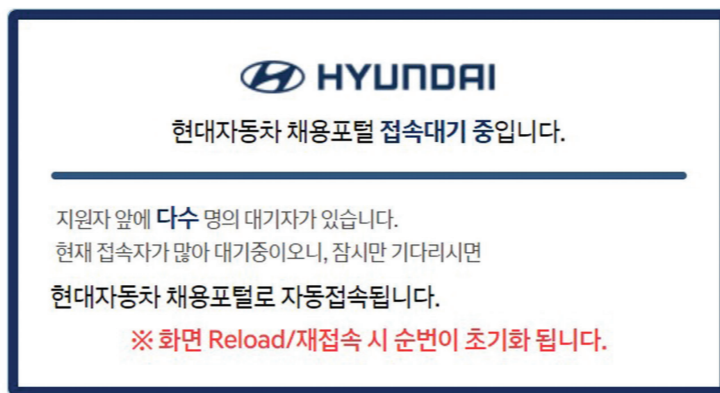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미리 공부하려고요. 아직 서류접수 기간인데 인적성 검사 대비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돈 주고 자기소개서 첨삭 신청하셨다는 분도 있어요.”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에 나서자 지원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서점에는 현대차 생산직 수험서까지 등장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면접 족보 같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생산직 채용 일정과 전형을 발표하고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현대차 생산직 신규 채용은 2013년 전주공장 채용 이후 10년만이다. 특히 이번 채용은 나이·성별·전공 제한이 없어 지원자가 최소 1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7월 임금협상을 타결하며 생산직 신규 채용에 합의했다. 채용 규모는 올해 400명, 내년 300명으로 총 700명이다. 이미 지원자들 사이에선 ‘킹차갓산직’, ‘킹산직’ (현대차 생산직을 높여 부르는 용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현대차가 생산직 채용 계획을 발표하자 서점가에는 관련 수험서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예스24가 집계한 2월 넷째주 취업분야 베스트에서 현대차 생산직 수험서는 1위와 3위, 4위에 각각 올랐다. 같은 기간 알라딘서점에선 12위와 14위,



15위를 차지했다.

취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합격 면접 족보 등 각종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 네이버 취업 커뮤니티인 독취사에는 현대차 생산직 채용 공고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별도로 마련됐다. 실시간 지원 예정자 조사와 이력서 온라인 첨삭도 진행 중이다.

생산직 채용에 지원했다는 A(28)는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다”며 “첫날부터 채용 홈페이지가 다운돼 애를 먹었지만 꼭 합격하고 싶을 만큼 열의가 크다. 합격하면 지금 다니는 곳은 바로 그만 둘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기능직 인력 채용 플랫폼 고초대졸닷컴은 현대차 생산직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이드북에는 채용 일정과 자소서 문항, 주요 사업 분야 등 지원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겼다.

현대차 생산직 채용은 취업준비생 뿐만 아니라 기존 직장인·공무원들에게까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는 “연봉 5000만원인데 이번에 현대차 지원이나 할까”, “현대차 생산직이면 공기업, 공무원 그만두고 갈 정도”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은 2021년 기준으로 960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4042만원)의 2.4배다.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정년 후에는 계약직으로 1년 더 근무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번 채용이 자동차 전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인력 채용이라고 강조했다. 10년만에 실시하는 생산직 신규 채용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류접수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서류 합격자 발표는 이달 말이다. 면접은 총 2개 차수로 나눠 1차수는 4월부터 6월 초까지, 2차수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실시된다. 차수별 1차 면접, 인적성 검사, 2차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계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잡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